

1940년대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

* 한 금 실

1. 머리말
2. 이세진의 생애
3. 1939~1941년 제주승가교육활동
4. 1942년 제주불교혁신운동
5. 제주 4·3사건과 혁신운동의 좌절
6. 맺음말

*제주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본 논문은 1940년대 전후 제주불교에 혁신운동의 바람을 일으켰던 이세진에 대한 연구이다. 이세진은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 해에 태어나 1949년에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가 남긴 활동의 업적은 40년이란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근대 제주불교가 어떠한 모습으로 굴절되어 갔는지 매우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어 근현대 제주불교를 고찰하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그의 주요 업적 중 근대 제주불교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濟州講院의 승가교육활동과, 서관음사에서 승려와 마을주민들이 합심하여 공동으로 추진했던 제주불교혁신운동 등은 제주불교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활동이었다.

이러한 이세진의 혁신사상의 바탕에는 유년시절부터 출가 이후 그의 행적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던 근대 禪農불교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선농불교는 일반 민중과 함께 생활 속의 불교를 지향하며 평등한 생산구조 속에서 노동을 통한 수행정신을 고취시켜 儻·俗이 함께 문제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불교개혁운동이었다. 이세진은 이 선농불교사상에 한국불교의 정신을 잇는 전통강원 교육을 연계시켜 한 사찰의 도량 안에서 승가교육기관인 강원과 생산체제의 틀을 갖춘 공장을 함께 설립 운영함으로써 기존 불교계 내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불교혁신운동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불교혁신운동의 실천장이었던 서관음사는 1949년 1월 도평리 집단학살사건 때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으며, 뒤이어 7월 경찰에 의해 총살당한 이세진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한 승려가 서관음사에 모셨던 불상을 도평리 인근 땅속에 묻고 홀연히 떠났다고 한다. 이로써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은 1940년대 역사의 장벽 앞에 부딪혀 근현대 제주불교의 슬한 흔적들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에 대한 본 연구는 현 제주불교의 정체성, 한국불교사와의 시대적 영향과 충돌, 한국사회 변동기에 불교계의 구체적 동향을 밝히는 기초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며, 현재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제주불교의 제반 문제와 향후 방향을 결정할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머리말

근대에 들어 제주불교는 김석운, 강창규 등 제주출신 승려들이 배출되고 타 지역의 승려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이루면서 점차 활동의 기반을 넓혀갔다. 특히 1908년 대흥사로 출가한 안봉려관이 박만하와 김석운 등의 도움으로 관음사를 창건하면서 제주불교는 본격적인 중흥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일제 강점기 제주불교는 이중적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었다. 조선 유림의 탄압으로 민중의 삶속에서 명맥을 이어온 제주불교의 축적된 역량은 근대에 들어와 활동의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민족사상으로 이어져 제주사회에서 항일운동

의 불씨를 지핀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1918년 서귀포 법정악에 위치한 법정사에서 주지 김연일을 비롯한 강창규, 방동화 등 수명의 승려들이 7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국권회복을 외친 법정사 항일운동이었다. 이 흐름은 항일운동가인 김석운이 1934년 범어사 제주포교소 월정사를 창건하여 그곳에 1938년 9월 선학원 후신인 朝鮮佛敎中央禪理參究院 제1지방분원을 설치하는 등 새로운 활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편 조선불교대회 범사였던 이회명이 1924년 제주불교협회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제주에는 또 다른 흐름이 형성된다. 제주불교협회의 설립취지는 ‘불교진흥’, ‘심신수양’, ‘지방문화발전’ 등이었다.¹⁾ 그런데 제주불교협회의 참여 인물을 보면 제주도 최고행정책임자인 일본인 島司를 비롯한 각계 유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일제가 제주불교협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배경에는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보여준 반일감정에 위기를 느낀 일제당국이 불교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불교계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해서 그에 맞는 조직적 틀이 필요했던 일제와 포교 활동에 박차를 가해야 했던 불교계의 의도가 서로 맞물린 것이었다. 제주불교협회의 창설은 결과적으로 제주불교가 육지부의 중앙불교와 직접 연계를 갖고 제도권에 실질적으로 포섭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²⁾ 이 흐름은 이후 193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농촌진흥운동의 일환인 심전개발운동으로 이어져 대흥사에서 파견된 문학연과 백양사의 이학암, 최청산, 이성봉, 김신산에 의해 진행되게 된다.

1930년대 중반까지의 제주불교의 상반된 흐름은 이후 호남지역에서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서다 백양사포교소로 부임해오는 이일선을 비롯한 제주출신 승려 이세진, 오이화, 이성봉 등에 의해 濟州佛敎聯盟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제주불교연맹은 1939년 제주불교 통일운동의 기치아래

1) 「제주불교협회」, 『동아일보』(1924. 11. 30); 「제주불교협회」, 『불교』 제6호(1924. 12); 「제주불교협회」, 『조선불교』 제10호(1925. 2. 11).

2) 오성, 「제7장 종교/제2절 불교」, 『제주도지』 제6권, 2006, 996-997쪽; 이경순, 「이회명과 제주불교협회」, 『근대제주불교를 읽는다 :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출간기념세미나』, 2002, 37-46쪽.

제주의 독자적 역량을 다져나가는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후 1945년 식민지체제로부터 해방이 됨에 따라 제주불교계는 朝鮮佛敎革新濟州僧侶大會를 통하여 왜곡된 불교풍토 정화와 불전강원 설치, 모범총립 창설, 교무원 운영 등 불교계가 풀어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에 나서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된다.

제주불교계의 이러한 모색은 해방 후 새롭게 형성된 인식이 아니라 근대시기부터 제주불교계에 꾸준히 제기되어 온 과제이며 숙원이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제주불교는 불교적인 요소보다 민간신앙적인 요소가 더 많았다. 근대 초 승려들의 경우 전통강원의 교육을 거치지 않고 무속인의 경력으로서 승려가 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 또한 사찰 창건 등 양적 발전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승가 본연의 기능을 갖춘 체계가 미흡한 상태였다. 그러나 제주불교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불교 본래의 의미를 되찾자는 자각운동이 일게 되고, 승가교육의 필요성과 독자적인 제주 본사 설립을 희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제주불교의 체제 확립과 내적 발전을 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의 고민 속에서 등장한 것이 1940년대 이세진의 불교혁신운동이었다. 이세진이라는 인물은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던 해에 태어나 1949년 제주4·3사건에 의해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의 40년이란 짧은 생애 속에는 근대시기 지난했던 운동의 단편들과 해방 후 제주4·3사건에 의해 짓밟힌 제주불교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근현대 제주불교를 고찰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특히 그의 주요 업적 중 근대 제주불교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제주강원의 승가교육활동과, 서관음사에서 승려와 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공동으로 추진했던 제주불교혁신운동 등은 제주불교사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활동이었다. 따라서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에 대한 연구는 현 제주불교의 정체성, 한국불교사와의 시대적 영향과 충돌, 한국 사회 변동기에 불교계의 구체적 동향을 밝히는 기초 자료로써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세진의 僧籍과 근대시기 제주불교의 문헌자료를 기초로 전개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1945년 제주승려대회와 제주불교청년단결성대회의 회의록이 적혀있는 『법계』, 1940~1950년 초까지 제주교무원에서 승려 교적과 명부·사찰관계의 자료를 모아놓은 『교적부』, 『교도책임자명부』, 『연혁철』, 『사찰등록철』, 『총무구』 등이 중점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밖에 근대시기의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수록된 문헌자료와 이세진의 상좌인 원혜관, 장연중, 강순익의 증언, 제주불교계 노장 승려들의 증언, 저지리·도평리 마을주민, 그리고 이세진의 속가 친족 등의 증언들이 일부 원용되었다.

2. 이세진의 생애

李世震은 1910년 8월 25일 제주도 한경면 저지리에서 농부였던 아버지 이찬백과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 김운하 사이에서 태어났다.³⁾ 이세진은 5세 무렵 주로 외가가 있던 제주시 산천단에서 생활을 했는데, 당시 그곳에는 이세진의 외할아버지 김달권과 외삼촌 김형근이 산천단 부근에서 법당 한 채를 마련하여 승려생활을 하고 있었다.⁴⁾ 또한 이세진의 모친인 김운하 역시 결혼 전부터

3) 觀音寺教務所, 『教籍簿』, 1947, 한국불교대교종 제주종무원 소장.

제주불교사연구회 편,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203-204쪽. 이세진의 생애는 그의 승적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교적부』를 기초로 하였다. 『교적부』는 해방 후 탄생된 제주교무원에서 제주승려들의 이력사항을 모아놓은 장부이다. 이세진을 비롯 총 40명의 기록이 담겨있는데, 현재 9명의 자료가 분실되어 31명의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을 토대로 그 외 구술자료를 참고하였는데, 그의 상좌인 원혜관·장연중·강순익과 이성월·일조·김평수·혜종 등의 불교계의 증언, 그리고 양경월·고계생, 도평리와 저지리 마을의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술을 채록하였다.

4) 고계생 구술(81세, 염팡아파트, 1998. 8. 필자 채록).

근대제주불교의 증흥은 1908년 안봉려관에 의해 관음사가 창건되면서 시작되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안봉려관이 화주로서 대대적인 포교활동을 펼친 업적은 매우 고무적이나, 안봉려관의 활동 이전 시기를 無佛시대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안봉려관이 관음사를 창건할 때 도움을 주었던 이들이 김석운, 박만하 등이었는데, 김석운은 1894년 위봉사에서 이미 출가를 하였고 박만하는 그의 은사였다. 또한 1918년 법정사향일운동의 주역인 강장규 역시 1892년 출가하여 활동하고 있었다(오성, 『제7장 종교/제2절 불교』, 『제주도지』 제6권, 문화·예술, 제주도편찬위원회, 2006, 987-993쪽).

불교에 심취해 있었는데, 그녀는 이세진의 출가 배경이 된 내장사 승려 白鶴鳴과 법제자의 인연을 맺고 있었다.

이러한 집안 내력의 영향으로 이세진은 1915년 6세 때 백학명이 있는 내장사로 보내지게 되었다. 이후 약 5년간 내장사에서의 유년시절을 보내고,⁵⁾ 1920년 경 제주에서 일반 사회교육인 보통교육을 받기 위하여 제주로 돌아온다. 그리고 1924년 濟州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고 다시 저지리 漢文私塾에서 1926년 12월 까지 四書를 배웠다. 이세진은 제주에서 이 두 교육과정을 거친 후, 그의 나이 18세가 되던 1927년 11월 25일에 백학명이 주지로 있던 내장사에서 출가한다.

이세진의 은사는 백학명의 만상좌인 한고벽이다. 한고벽은 1930년대 중반 내장사 주지를 역임했으며,⁶⁾ 주로 선방과 토굴에서 수행했던 선승이었다. 또한 이세진의 沙彌戒師는 김봉수인데, 그는 훗날 제주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이일선과 中央學林에서 동문수학했던 인물이다.⁷⁾

이세진은 비구계를 1930년 백양사에서 받게 된다. 戒師는 유금해로, 그는 대홍사와 내장사의 傳戒和尚이었으며 백양사와 불갑사 선원의 宗主를 역임한 전남지역의 대표적 선승이었다.⁸⁾

이후 유년시절부터 이세진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던 백학명이 1929년 63세의 나이로 입적하게 되자, 이세진은 다음해인 1930년 7월 내장사 四集科를 졸업한 후 내장사 생활을 정리하고 경성의 불교전문강원인 대원강원(大圓講院)에 입

5) 이 기간 중에 이세진은 승복을 입은 동자승의 모습으로 백학명과 함께 관음사를 왕래하기도 하였다(앞의 고계생 구술채록, 1998. 8).

6) 『佛紀二千九百六十二年 乙亥 三月 十五日 立石 徒弟秩 一奎 戒輪 鳳華 慧淳 道悟 馬江 默堂 孫 世震 世鎬 世煥 世旭 師兄 鷲峰 師弟 鉉圭…中略…禪雲寺秩 錦湖 浩溟 映明 鶴洙 尚鉉 長熙 一鮮…中略…崔寶藏雲 時住持韓古碧 事務殷道』(『鶴鳴碑陰記』, 내장사 비석, 1935).

1935년에 세워진 이 비석에는 손상좌로 세진이 기록되어 있으며, 同 문중의 선운사 계열로 이후 제주불교에서 함께 활동하게 될 일선도 확인되고 있다.

7) 『불교유학생 유학회』, 『동아일보』(1921. 8. 9). 중앙학림은 1915년 개교하여 1928년에는 불교전수학교로, 1930년에는 중앙불교전문학교로 간판을 바꾸었다. 그리고 1940년에 해화전문학교로 다시 바뀌어 이어오다가 1944년 일제에 의해 강제 폐쇄되었다. 그리고 해방 직후 복구되어 1946년 현 동국대학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8) 불학연구소, 『강원총람』,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1997, 653쪽.

학한다. 여기서 이세진은 1934년까지 大敎科 및 隨意科를 모두 이수하고 같은 해 6월부터는 敎育활동가로서 현장에 나서게 된다.

이세진이 처음으로 敎育활동을 펼친 곳은 출가 사찰인 내장사이다. 이세진은 이곳 내장선원에서 참선과 학문·노동·음악 등의 다양한 敎育방법을 통하여 후학들을 양성하며 1934년부터 1937년까지 약 3년의 기간동안 敎育활동에 매진하게 된다. 또한 내장사 總務職을 역임했으며, 이 기간 중 백양사에서 대선법계(大禪法階)와 中德法階를 稟受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1937년 3월에는 표훈사 衆香講院의 講主로 부임하여 강원도 금강산에서 두 번째 敎育활동을 시작한다.⁹⁾ 중향강원은 사미, 사집, 사교과로 구성되어 있고, 학인의 수는 17명이었다. 또한 이 중향강원에는 강주 이세진과 함께 外科講師 한경원이 佛典 외의 근대 신학문을 가르쳤다.

이세진의 중향강원에서의 활동은 약 2년이었으며, 이 시기에 이세진은 제주로 귀향할 것을 결심하게 된다. 이세진이 제주에서의 활동을 결심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설정할 수 있겠지만, 백양사포교사였던 이일선의 來島, 제주불교연맹의 추진 계획, 그리고 1930년 중·후반대의 한국불교 자주화운동과 불교청년운동의 침체 등을 그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이세진은 백양사계의 이일선, 송만암의 요구¹⁰⁾와 제주불교의 통일기구 창설, 그에 따른 제주승가교육의 가능성 등을 바라보고 1930년대 후반 침체된 불교청년운동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활동의 근거지로 제주를 선택한 것이다.

제주로 귀향할 것을 결심한 이세진은 1939년 2월 백양사 한림포교당 포교사로 부임 받고 入島한 직후 활동을 시작한다.¹¹⁾ 그리고 두 달 뒤인 1939년 4월에

9) 봉선사 흥법강우회, 『전조선강원학인명부』, 『흥법우』 제1호(1938. 3).

10)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 : 조선총독부관보 불교관련자료집』 상,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1, 944, 948쪽. 송만암은 1938년 10월 백양사 한림포교당을 인수한 후 1939년 1월 포교담당자로 이세진을 발령하였다.

11) 『인사소식』, 『불교시보』 45, 1939. 4. 1.

해중의 구술내용(78세, 중혼각, 1999. 10) : 백양사 한림포교당의 당시 사찰명은 월계사였다. 부임 때의 분위기를 증언을 통해 잠시 살펴보면 “월계사를 창건해서 백양사 포교당이었는데 주지스님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백양사에서 이세진스님을 보낸 거라. 육지서 큰 스님 온다고 해서 보살님들이 월계사에 다녀오고 그랬어. 부처나 다른 스님이 육지

濟州佛教聯盟이 발족되면서¹²⁾ 이곳에서 교육부장을 맡게 된다. 제주불교 통일 기구의 역할을 담당했던 불교연맹에서의 이 직위는 근대제주 승가교육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세진은 제주도내 각 사찰의 청년승려들을 모집하여 관음사포교당인 大覺寺¹³⁾에서 근대의 첫 강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강원에서 배출된 학인의 수는 대략 50여 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렇게 의욕적으로 출발한 이세진의 제주에서의 첫 교육활동은 1941년 대각사에서 치러진 比丘受戒式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이에 이세진은 1942년 기존의 공식 활동을 모두 정리하고 도평리 산간마을에 서관음사(西觀音寺)를 창건하여 그곳에서 기존 승가체제의 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도평리 서관음사로 자리를 옮긴 이세진은 이곳에 법당(法堂)과 객실(客室), 그리고 기와공장을 세웠다. 이 기와공장은 이세진과 청년승려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僧俗의 共同體를 형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이세진이 직접 시장에 나가 판로를 개척하기도 하였다.¹⁴⁾

그러나 1945년 해방이 되고 미군정이 등장하면서 제주사회는 격변의 현장으로 돌변한다. 이 격변의 시대에 이세진을 비롯한 제주불교계 인사들의 사회참여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불교혁신운동의 중심지인 서관음사 역시 시국을 논의하는 장소로 활용되면서 점차 4·3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흘러들게 되었다.

이세진은 1948년 봄 입산하여 무장대 활동에 참여한다. 이세진의 활동 모습은 1948년 겨울부터 1949년 1월경까지 이덕구가 속해있던 제주 도당사령부 내에서 목격되기도 하였다.¹⁵⁾ 이 시기 이세진의 무장대 활동 기간은 약 1년 정도이다. 제주도당사령부가 관음사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1949년 3월, 무기를 땅속에 묻고 후일을 기약하며 하산하게 되는데, 이세진은 이때 토벌대의 포로로 잡힌다. 그리고 제주시 산지부두에 있는 주정공장의 수용소에 감금되어 고문

서 왔다고 불교이력을 다 마친신 분이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12) 『제주불교연맹 결성』, 『불교시보』 47, 1939. 6. 1.

13) 대각사는 1923년에 창건된 관음사 읍내포교당의 사찰명이며, 현재는 관음사 중앙포교당으로 불리고 있다. 당시 대각사 건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14)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2인의 증인을 통해 본 근현대불교사』, 선우도량, 2002, 197쪽.

15) 김광순 구술(70세, 하도리 명법사, 2003. 7, 필자 채록).

을 받다가 풀려난 후 관음사 포교당에서 은신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인 1949년 7월 9일 아침, 식사를 하던 도중 사복경찰에 의해 잡혀간 후 결국 총살되면서 파란만장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¹⁶⁾

서관음사는 1949년 1월 도평리 집단학살사건 때 토벌대에 의해 전소되었으며, 뒤이어 7월 이세진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한 승려가 서관음사에 모셨던 불상을 도평리 인근 땅속에 묻고 홀연히 떠났다고 한다.¹⁷⁾ 이로써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은 1940년대 역사의 장벽 앞에 부딪혀 근현대 제주불교의 슬픈 흔적들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3. 1939~1941년 제주승가교육활동

이세진이 대원강원을 졸업하고 내장사와 표훈사에서 교육활동을 하던 1930년대 중·후반기는 불교자주화운동과 불교청년운동의 침체기였으며, 여러 사조의 논쟁이 혼란을 거듭하던 시기였다. 이와 함께 1930년 중반부터는 각 지방별 본산이 자체 발전을 꾀하며 慶南三本山宗務協議會, 慶北佛教協會, 全南五本山聯合會를 결성하였다.¹⁸⁾ 그리고 이 움직임은 1930년대 초부터 논의되었던 總本山建設運動의 촉매제가 되어, 1938년 10월에는 총본산 건물인 대웅전(현재의 조계

16) 이세진의 죽음에 대해서는 총살과 수장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실제 그의 동복동생인 고계생의 증언(80세, 제주시 연동, 1998. 8, 필자 구술채록)에 따르면 이세진이 수장을 당하였다는 주변의 얘기를 전혀 듣고 사라봉과 같은 제주시 해안오름의 동굴들을 찾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나 이세진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제주승려들의 경우는 그가 수장이 아닌 군경에 붙잡혀 총살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고계생 역시 처음에는 수장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들려온 소식에는 이세진이 수 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개 처형되었고, 누군가가 거적을 띄워 주었다는 목격담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세진의 죽음을 군경에 의한 총살로 결론을 내렸다.

17) 앞의 김광순(2003. 7, 구술채록; 홍순녀(75세) 외 도평리 현지주민(도평동 흥룡사, 2003. 10, 구술채록). 이 구술은 서관음사 인근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에게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매장 경위나 위치 등은 전하지 않으며 다만 서관음사 일대로만 추정하고 있다.

18) 김광식, 『우리가 살아온 한국불교 백년』, 민족사, 2000, 82쪽.

사)이 완공되기에 이른다. 이 총본산운동은 한국불교의 대표·통일기관을 건설하여 주지 임명권 확보와 불교교단의 재건을 목표로 추진된 운동이다.¹⁹⁾ 그러나 결과적으로 1930년대 일제의 황국신민화 정책에 맞물려 심전개발운동과 함께 일제의 원활한 통제기구로 활용되는 異面을 낳기도 한다.²⁰⁾

이러한 1930년대 중반 이후의 흐름은 제주불교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총본산 건설운동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던 1938년, 백양사 출신 이일선은 제주에 파견되어 관음사 오이화와 함께 제주불교연맹의 결성을 추진하게 된다.

이세진은 1939년 2월 3일자로 백양사 한림포교당 포교사로 부임을 받고 제주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²¹⁾ 그리고 이세진이 제주에서의 활동을 시작한 지 2개월 뒤인 1939년 4월 2일 오후 2시에 관음사 포교당에서 濟州佛教聯盟結成會가 개최되게 된다. 제주불교연맹은 제주불교의 통제, 신양보국의 실천, 대중불교의 실현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표 1>의 조직을 구성하였다.²²⁾

〈표 1〉 제주불교연맹 임원(1939년)

직 책	위원장 및 부장	부 원
집행위원장	오이화(吳利化)	
서기장 겸 서무부장	조희영(曹喜英)	백학기(白鶴起)
회계장 겸 재무부장	송재술(宋在述)	김경수(金敬洙)
포교부장	이일선(李一鮮)	조의환(曹義煥), 고윤진(高允辰)
교육부장	이세진(李世震)	오현숙(吳賢淑), 고수선(高守善)
교육부 내 음악부장	김주(金主)	
수양부장	김경식(金景湜)	강남해(康南海), 현목련(玄木蓮)
체육부장	김경식(金景湜)	고원호(高元昊), 장기선(張基善)
검사위원	이성봉(李聖峰), 오일화(吳一華), 방동화(房東華), 김민수(金玫守), 임계련(林桂蓮)	

19) 강석주·박경훈, 『불교근세백년』, 중앙신서, 1984, 160-161쪽.

20)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186-203쪽;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402-458쪽.

21) 『인사소식』, 『불교시보』 45(1939. 4. 1).

22) 『제주불교연맹 결성』, 『불교시보』 47(1939. 6. 1).

여기서 집행위원장 오이화는 당시 관음사 주지였으며, 그 외 원당사·금봉사·월만사·정방사 등 각지의 사찰 주지들이 폭넓게 간부직에 배정되어 있다. 이는 명실상부 제주불교의 통일기구로서 그 출범에 앞서 제주불교의 토착 세력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세진이 담당했던 교육부이다. 당시 제주불교에는 승가교육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강원이나 여타의 교육기관이 없었다. 관음사를 비롯한 일부 사찰에서 개별적인 강연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그것으로 후학을 양성한다거나 교육의 성과를 올릴 수는 없었다. 이것은 제주에 본사가 부재한 요인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제주불교가 독자적인 통일 체제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제주도 자체에서 청년 승려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교육기관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전 제주불교 토착세력이 중심이 되어 포교활성화를 추진했던 1931년 제주불교임시대회에서 이미 ‘현하 불교의 退步됨을 叫唱하고 장래 教務를 쇄신할 正신으로’ 라는 취지아래 교육에 관한 안을 상정하고 협의한 바가 있었다.²³⁾

이러한 제주불교의 과제는 제주불교연맹 출범에 앞서 중항강원의 강주로 있던 제주출신의 이세진을 강사로서 요청하게 되었고, 결국 이세진은 제주의 승가교육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고 제주에서 불교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제주불교연맹은 첫 사업으로 전도 순회강연을 개최하였는데,²⁴⁾ 1939년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두 달에 걸쳐 행해졌다. 강연 지역은 삼양을 시작으로 조천, 김녕, 평대, 세화, 성산, 표선, 남원, 서귀, 법환, 중문, 안덕, 모슬포, 고산, 판포, 한림, 애월, 하귀에서 치러졌으며 장소는 소학교, 향사, 공회당 등이었다. 강사는 불교연맹의 간부진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세진을 비롯해 이일선, 오이화, 김경식, 조희영이었다.

이 순회강연의 내용은 인생에 대한 종교의 힘, 인생과 신앙 등의 일반적인 종교개론과 함께 심전개발과 불교, 사변과 吾人의 각오, 사변과 銃後의 임무,

23) 『제주불교 임시대회 개최』, 『매일신보』, 1931. 12. 6.

24) 『제주불교연맹 제1회 巡講記』, 『불교시보』 51, 1939. 10. 1.

保國상의 불교 등 당시 시국을 반영한 강연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제주불교연맹의 또 다른 측면인 일제의 선전 창구로서의 역할을 말해주는 것이며, 또한 이세진이 제주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갖게 되는 한계이자 전시체제 하의 시대적 상황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안고 시작된 순회강연 속에서 이세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세진은 순회강연에서 총 6회에 걸친 강연을 하게 되는데, 그 강연주제를 살펴보면 가정교육과 신앙, 교육과 신앙, 자연과 인생, 是甚麼, 我是我誰였다. 이것은 생활불교와 선에 대한 내용으로 타 강연의 주제와는 너무 대조적이고 의외의 내용이다. 물론 이세진이 순회강연의 목적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리고 다른 승려의 주장 역시 1940년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세진이 제주불교의 활동 속에서 잃지 않으려 했던 그의 교육사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제주불교연맹 역시 일제라는 현실에 절반의 자리를 내주었다고 한다면, 다른 이면에는 이세진과 같은 한국불교 사상의 면모를 보여줄 불교내적인 발전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순회강연은 단 1회로 끝이 난다. 대대적인 출범식을 갖고 시작했던 제주불교연맹의 활동이 단 한 번의 공식행사로 시들해 버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제주불교연맹에서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중요시 여겼던 사업은 다른 데 있었다. 그것은 바로 대각사 승가교육으로, 제주불교연맹이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었던 1941년까지 이끌어나가게 된다. 그렇다면 당시 제주불교계에서는 왜 그토록 승가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제주불교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 양적인 발전을 이루며 사찰의 수가 증가하고 출가승려 또한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부재했던 까닭에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주 승려들의 성향이 미신적인 경향으로 쏠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일었다.

둘째 당시 本末寺制度 하에서 제주의 사찰과 승려들은 모두 육지부의 대흥사, 백양사, 위봉사, 기림사 등에 등록되어 있었다. 지역 정서적으로는 제주불교에 속하면서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각기 다른 지도체제와 활동의 틀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찰간의 갈등구조를 양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에서의 승가교육을 통해 새로 배출되는 출가 승려들을 제주불교라는 구심체 속에 통합하고자 하였다.

셋째 이러한 제주출신의 승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통강원의 淸規와 엄중한 威儀를 통해 제주불교의 승가정신을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하였던 제주불교의 자립을 위한 통일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에 승가교육기관의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것은 이후 1945년 제주혁신승려대회에서 제주불교 叢林건설과 講院설립이 함께 제기되었던 것처럼, 제주불교가 독자적인 행정체제를 갖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주승가교육을 담당할 강원 건립이 가장 큰 당면의 과제로 인식된 결과였다.

결국 제주불교연맹은 외적으로는 일제의 통제를 수용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자체의 통일 욕구와 그것의 전제조건인 승가교육을 꾸준히 후원하고 보호해왔던 것이다. 이세진은 순회강연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 후 곧바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대각사에서 승가교육이다.

이세진이 제주에서 첫 강원교육을 실시한 곳은 大覺寺이다. 대각사는 현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관음사 포교당의 사찰명이다. 교육의 시작은 불교연맹의 출범일인 1939년 4월 직후로, 불교연맹의 교육부장직을 맡으며 곧바로 학인을 모집하고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²⁵⁾ 교과과정은 沙彌科, 四集科, 四教科, 大教科로 구성되었다. 여기서 다른 지방의 강원과 다른 점을 찾다면, 대부분 각 강원내 소속된 학인들의 경우 그 강원내 자리한 사찰에 기거하며 교육을 받게 되는데, 대각사에서 모집된 학인들은 각자가 소속된 사찰에서 정기적인 출석에 의해 참석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주지역이 지리적 여건

25) 강대효 구술(86세, 제주시 일도동, 1999. 10, 필자 채록). 그 외 혜일(55세, 서귀포시 정방사, 1999. 5, 필자 채록), 원혜관(2000년 입적, 보목동 혜관정사, 1998. 6, 필자 채록), 장연중(83세, 한림읍 웅포리 웅포포교당, 1997. 12, 필자 채록) 등의 구술채록을 추가로 참고하였다.

상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사찰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판단되며, 대각사 역시 적지 않은 학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이유로 보인다.

이세진의 대각사 승가교육에 대한 기록은 1941년 3월 15일 比丘受戒式을 마친 후 찍은 빛바랜 단체사진 한 장과 당시 교육을 받았던 학인들의 증언,²⁶⁾ 그리고 ‘教籍簿’와 ‘教徒責任者名簿’에 실린 승려들의 수학 행적을 통해 찾을 수 있다.²⁷⁾ 이 중 대각사를 배경으로 촬영된 비구 수계식의 사진은 당시 승가교육의 교과과정을 마친 학인들과 강주 이세진의 모습이 실려 있다(<그림 1> 참조). 사진에 나오는 학인의 수는 20여명으로 장연중, 오한일, 김용화, 항봉, 김흥조, 성주, 광일, 오춘송, 김태웅, 현응환, 오윤집, 강대효, 강동은, 두전, 원혜관 등이다. 이 중 강대효, 강동은, 장연중, 원혜관은 이후 이세진의 상좌가 된다.

대각사 승가교육은 제주불교에서 시도된 강원외의 첫 흔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에서 승려 교육이 개별적으로 실시된 예는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관음사나 금봉사²⁸⁾ 등과 같이 한 사찰에서 특정인물을 초빙하여 학인을 양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형태를 보면 所依經典을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학습하거나, 다른 지방의 高僧을 모셔와 잠시 배움의 기회를 갖는 정도였다.

그러나 대각사의 경우는 전문 강사가 상주하며 전통강원의 형식에 맞는 체계적인 교과과정과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했다는 데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26) 대각사 제주강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인들 중 수 명이 현재 제주불교 종단에 소속되어 있는 80세 전후의 승려들이다. 이에 관한 구술채록은 강대효(1999. 10.), 원혜관(1998. 6.), 장연중(1997. 12.), 혜일(1999. 5.) 등이 있다.

27) 관음사교무소, 『教籍簿』(1947); 대한불교제주교도회, 『教徒責任者 名簿』, 1951.

28) 당시 금봉사 승가교육에 참여한 학인의 수는 10여 명 가량으로 출신지는 관음사, 금봉사, 백련사, 월성사, 법화사 등이었다. 강사는 최청산이며, 그가 1933년 지금의 대원정사인 원천사로 옮기기 전까지 금봉사에서 교육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강원체제의 틀로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소의경전을 한 권 정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현재 금봉사 주지이며 이성봉의 손자인 수암(68세, 구좌읍 하도리 금봉사, 2000. 6. 필자 채록)과 최청산에 대한 증언을 한 일조(66세, 애월읍 수산리 대원정사, 1999. 8. 필자 채록)의 구술을 참조하였다.

이세진은 근대제주불교에서 처음으로 승가의 전통교육기관인 대각사 제주강원을 출범시켜 제주의 청년승려들을 이끌어어나갔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제주의 여건상 학인들이 한 사찰에 모여 거주하며 교육을 받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강원 구성의 기본요건인 사미, 사집, 사교, 대교과의 교과과정을 통해 학인을 배출해 냈던 것이다.²⁹⁾

이렇게 제주의 강원에서 졸업하거나 수료 중이던 학인의 수는 대략 50여 명이 된다.³⁰⁾ 그러나 출범 후 2년 뒤인 1941년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비구 수계식을 마지막으로 대각사에서의 교육활동은 막을 내리게 된다. 그 요인으로는 1939년 7월 첫 사업이었던 1차 순회강연 뒤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던 불교연맹이 1940년대로 넘어오면서는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 현실적 여건 때문이었다. 이 시기 제주불교계의 활동은 거의 동결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은 1940년대 전후의 중일전쟁 여파와 태평양전쟁으로 돌입하던 당시 식민지 말기의 정세에 따른 것으로 불교계뿐만 아니라 제주사회 전체가 혼란과 긴장 속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외적인 정세변화와 함께 내부의 문제 즉 협소한 교육장소와 제주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그리고 성숙되지 않은 제주불교의 교육 현실 등이 승가활동의 장애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4. 1942년 제주불교혁신운동

이세진은 제주불교에서 이루고자 한 승가교육이 1941년에 중단되자 제도권 내에서의 활동을 포기하고 새로운 장을 모색하게 된다. 이세진은 이듬해인 1942년 공식적인 포교사직을 내놓으며 기존 활동을 모두 정리했다. 그리고 어

29) 불학연구소 『강원총람』, 1997, 60쪽.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미과의 경우는 기초교육으로서 반야심경, 초심문, 발심문, 자경문 등을 학습했으며, 사집과는 도서, 서장, 절요, 선요가 교재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사교과에는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이며, 사교과에는 화엄경, 진동록, 탁송집(십지론, 선가귀감, 범화경)이 교육되어졌다.

30) 앞의 강대효(1999. 10), 헤일(1999. 5) 구술채록.

는 조직에도 소속되지 않는 새로운 근거지인 서관음사를 통하여 불교혁신운동을 현실화시켜 나갔다.

1942년 이세진은 도평리에 위치한 조그만 산간 마을에 터를 잡고 西觀音寺를 창건하였다. 원래 초가가 있던 그곳에 이세진은 법당과 객실 한 채씩을 짓고 나머지 터에는 기와공장을 세웠다. 이 서관음사 기와공장은 이세진과 대각사 승가교육을 통해 배출된 청년승려들,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僧俗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운영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된 기와는 이세진이 직접 시장에 나가 販路를 개척하였다.³¹⁾

그러나 당시 제주도의 경제적 여건상 판로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와가 대부분 사찰 신축이나 보수공사를 하는 데 쓰였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것도 지금처럼 흔한 일이 아니었다. 갑작스런 기와공장의 운영도 의아하지만, 강주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그가 시장에 나가 직접 판로를 찾아 헤맸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세진이 이렇게 변모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세진이 청년승려들에게 남긴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진다. 혜관정사 주지 원혜관은 당시의 일을 이렇게 회고했다.³²⁾

이세진 스님은 정신이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육지 강원에서 강사노릇도 하고 제주에 들어와서 혁신을 같이 주장했던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혁신을 하자면 오늘날까지는 승려가 보시를 받고 생활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생산을 해서 보시를 주고 교회사업을 해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관음사 흙이 좋아 그곳에서 기와공장을 했습니다. 기와를 팔아 학인을 모집해서 불교강원을 하자는 취지로 기와공장을 만들었던 것이었죠. 나도 도왔고 다른 스님들도 들락날락 하면서 도와줬어요.³³⁾

31) 앞의 원혜관(1998. 6), 장연중(1997. 12), 강대효(1999. 10) 구술채록과 양경월 구술(80세, 제주시 외도동, 1998. 10, 필자 채록) 참조.

32) 원혜관은 1917년 생으로 해방 이후 1945년 제주불교청년단과 제주승려대회 교무위원을 역임했으며, 1967년에는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을 역임하는 등 근현대 제주불교에 많은 업적을 남겼던 승려이다. 2000년 세수 85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33)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2인의 증인을 통해 본 근현대불교사』, 선우도량, 2002, 197쪽, 앞의 원혜관(1998. 6, 구술채록).

원혜관은 이세진의 상좌로서, 대각사 제주강원에서 수학하고 서관음사의 불교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당시 제주청년 승려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이세진이 제주에 와서 청년승려들에게 혁신 사상을 심어주었고, 특히 서관음사의 창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서관음사의 목적은 승가내부의 생산 활동을 통해 자립적인 불교강원을 세우고자 한 것이었다. 대각사에서 이루지 못한 승가교육활동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불교계 스스로의 경제적 힘을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즉 이세진은 제도권 운동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서관음사를 창건하고 새로운 제주불교혁신운동을 펼치고자 했었던 것이다.

1942년부터 1947년경까지 이루어진 이 서관음사에서의 활동은 이세진이 추구했던 제주불교혁신운동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이세진은 한국불교의 정신을 잇는 전통강원교육과 선농불교사상을 접목시켜 한 사찰의 도량 안에서 승가교육기관인 강원과 생산체제의 틀을 갖춘 공장을 함께 설립하여 새로운 형태의 불교운동을 제시한 것이었다.

선농불교운동은 열악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관권과 그에 결부된 재력가 또는 기득권층으로부터 벗어나, 불법을 구하고 수행자 본연의 모습 속에서 교단을 이끌어내고자 한 운동이다. 이것은 法臘이나 지위, 나이, 재가자나 승려 할 것 없이 모두가 평등한 노동을 통하여 생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그 바탕 위에 진정한 수행정신을 진작시키고 청정한 교단을 구축할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었다.

대각사 승가교육의 무산, 전시체제 하에서 일제의 강압정치, 그리고 식민지 종교로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와 불교의 퇴색,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세진이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청년기에 심취했었던 선농불교의 기본 정신이었다.

그러나 이세진은 이곳 서관음사에서 기존 선농불교운동에서 행해졌던 자급자족의 농사 형태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제주도가 진라도처럼 땅이 비옥하거나 영농 환경이 좋은 조건은 아니라는 데에 1차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같은 백양사포교사로서 함덕 외딴섬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신흥연의 경우에는 열악한 함덕의 지리적 환경을 극복함으로써

써 더욱 확고히 지역공동체 속에서 불교운동을 정착시켜낼 수 있었다. 이 신흥연의 농촌계몽 역시 그 뿌리는 선농불교사상에서 출발하였다. 백양사의 주지 송만암은 내장사 백학명과 함께 선농불교운동을 펼친 인물이었으며, 이후 사회 흐름에 편승해 농촌지역을 회생시킬 적극적인 계몽운동에 동참하여 전국 각지에 백양사포교사를 파견하였다. 여기에 함께 동참했던 인물이 백양사포교사인 이일선과 신흥연이었다.

이세진은 이러한 신흥연과 이미 친분관계에 있었고, 그가 행한 농촌지역에서의 선농불교운동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가 농사가 아닌 공장 설립이라는 의외의 카드를 들고 나온 데는 어떤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인가. 이것은 이세진의 불교혁신사상의 맥락에서 함께 파악할 수 있겠다.

그것은 첫째, 서관음사의 취지에서 나타나는 “혁신을 하자면 오늘날까지는 승려가 보시를 받고 생활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생산을 해서 보시를 주고 교화 사업을 해야겠다고 했어요.”라는 내용에서처럼 보다 근원적인 불교 경제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승가 내부의 경제활동을 통해 외부의 세력에 좌우되지 않는 승가의 독립을 이뤄냄과 동시에, 더 나아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그것으로써 제2, 제3의 교화사업을 일으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생각된다.

둘째, 불교계에 보다 적극적인 경제관을 도입하여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 활로를 모색하자는 의미로 보인다. 특히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서관음사에서 다수의 학인을 수용할 수 있는 불교강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기존의 보시와 후원으로 이루어진 경제의 틀을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더욱 크게 부담으로 늘어난 경제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사보다는 공장의 형태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셋째, 192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주도했던 反宗教運動이 기독교·천도교 등의 종교단체들과의 충돌에서 점차 확대되어 1930년대 들어서는 불교에 대한 비판까지 가해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반종교운동의 영향으로 승려의 생산 활동에 대한 고민과 변화의지가 널리 확산되게 되는데, 이세

진의 공장설립 역시 이러한 변화의 수용으로 판단된다.³⁴⁾

넷째, 서관음사를 중심으로 한 도평리 일대는 기와를 굽기에 적합한 토양을 이루고 있었다. 1970년대까지 서관음사 터에는 벽돌공장이 자리하고 있었고 지금도 서관음사 터 바로 맞은편에 대규모의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 있다. 즉 이세진은 서관음사에서 가장 적합한 경제활동을 선택하여 기와공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며, 그것이 농업이건 상공업이건 별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상 서관음사에서 행해진 경제활동과 함께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서관음사에서 전문적인 불교강원 설립의 추진과 별개로 미흡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것은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나온 高濟善의 경우 1942년 12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서관음사에서 丙典 初等科와 中等科를 수료한 사례에서 확인이 된다.³⁵⁾

이것은 서관음사가 창건된 직후 이곳에서 승가교육이 행해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이세진은 1941년 대각사 승가교육이 좌절되자, 1942년 서관음사에서 새롭게 학인을 모집하여 그 승가교육의 맥을 이어갔던 것이다.

그러나 서관음사의 터너지 않은 경제적 여건상 교육활동이 원활하지 못했을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더욱이 이세진은 대각사에서 이루지 못했던 모범적인 불교강원을 새롭게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것은 이세진 뿐만이 아니라 제주불교의 숙원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이세진은 침체된 제주불교를 활성화시키고 그의 교육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34) 김광식, 『1930년대 불교계의 반종교운동 인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2000, 40-70쪽.

35) 고제선의 이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범명 正學 은사 吳利化, 수계 1940년 3월 8일 해남군 대흥사에서 사미계를 受, 1933년 3월 24일 제주공립보통학교 졸업, 1935년 3월 25일 경성 고등예비학교 중학부 2년 수료, 1938년 3월 25일 경성전기학교 전기본과 3학년 졸업, 1940년 3월 10일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X광선과 수료, 1942년 12월 10일 서관음사에서 李古山(이세진의 법호)화상을 師하여 내전 초등과 수료, 1945년 9월 15일 右 李古山을 師하여 내전 초등과 수료”라고 기록되어 있다(관음사교무소, 『교적부』). 여기서 내전 초등과와 중등과는 강원의 교과과정 중 沙彌科와 四集科에 해당한다.

고제선은 이세진의 법제자였으며, 1945년 12월에 개최된 ‘조선불교혁신제주승려대회’에 서관음사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강원과 공장설립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유기적인 형태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승속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며 일반민중의 삶 속에 불교의 정신을 깃들게 하였다. 이전 제주 불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형태의 제주불교혁신운동은 바로 이세진이 제주불교에 뿌리내리고자 했던 그의 교육사상의 정수였다.

이렇게 이세진의 불교혁신운동의 근거지가 된 서관음사는 근현대 제주불교의 중추세력이었던 오이화, 이일선, 원문상 등이 왕래하며 제주불교의 현안을 논의하던 장소이기도 했다. 이것의 직·간접적인 영향은 1945년 12월에 열린 제주승려대회에서 불전 강원설치, 인재양성 등의 의안이 제기되는 계기를 마련한다.³⁶⁾

그러나 근대 제주불교의 후반부를 이끌었던 이세진과 이일선, 오이화, 원문상 그리고 서관음사에서 배출된 학인 고제선 등은 해방 후 4·3에 연루되어 모두 생을 마감하게 된다. 이세진이 1948년 입산을 결심하기 전까지 서관음사에서 이들의 만남은 지속되었는데, 그 속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속내를 알 길은 없다. 다만 서관음사라는 혁신운동의 근거지가 1940년대를 통틀어 불교계와 제주사회에 어떤 위치로 자리하고 있었는지는 짐작할 수 있다.

1945년 해방 이후 제주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과 함께, 뒤이어 등장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의해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게 된다. 서관음사와 이세진 역시 이러한 제주의 긴박한 현실 속에 놓여있었다. 그리고 그 긴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 참여했던 이세진의 죽음과 함께 그가 주창했던 불교운동도 결과적으로 소멸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세진이 서관음사에서 이루고자 했던 자주적인 교육체제와 선농불교사상에 입각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은 서관음사 활동이 남긴 성과이며 제주불교에게 던진 과제이자 그 본보기가 되고 있다.

36) 『조선불교혁신 전도승려대회 회의록』, 『법계』, 1945.

5. 제주 4·3사건과 혁신운동의 좌절

제주 4·3사건(이하 4·3으로 약칭³⁷⁾)은 기존 제주불교계의 제 기반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법난이었다. 1945년까지 제주불교 관련기록에 나타난 사찰의 수는 대략 100여 곳에 이른다. 이중 현재까지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4·3으로 피해를 본 사찰은 35곳이며, 16명의 승려들의 인명피해도 확인되었다.³⁸⁾ 기록에 나타난 100여 곳의 사찰 중에서 약 8 곳의 사찰만이 파옥되거나 불태워지는 피해를 면했는데, 나머지 50여 곳은 그 행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³⁹⁾ 또한 당시 승려나 사찰의 분위기가 일반 속인들과 함께 비승비속의 모습으로 생활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록에 등재되지 않았던 사찰 수도 적지 않을 것이다.⁴⁰⁾ 이렇게 본다면 당시 제주불교계의 피해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증가할 수도 있다. 실제 대대적인 포교활동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며 성숙된 불교운동을 정착시켜 나갔던 근대제주불교는 4·3이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화되었고, 현재의 제주불교의 뿌리를 상실케 만들었다.

서관음사는 앞에서 잠시 언급되었듯이 1945년 제주불교승려대회의 대표인 물들이 제반 논의를 하던 장소로서 4·3 발발 직전에는 시국을 은밀히 토로하던 장소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1947년 서관음사에서는 다수의 승려와 재가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세진 모친의 환갑잔치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세진의 동복동생인 고한수가 참석자를 상대로 시국을 비판하는 정치적인 내용의 연

37)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533-540쪽.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제주4·3사건’의 명칭은 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른 것임을 밝혀둔다.

38)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제Ⅱ : 제주도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4, 121-139쪽.

39) 이것은 2004년까지 문헌자료와 구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며, 현재 상대리 사찰을 비롯해 몇 곳의 추가 피해가 확인되고 있어 차후 보다 상세한 불교계 피해가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0) 근대시기 제주승려의 外樣은 현재와는 달리 승속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았다. 김택춘의 증언에서 원문상은 평소 속인의 모습을 하고 속가에서 생활을 했는데, 우연히 법화사에 그와 동행했다가 갑자기 예불을 드린다면 승복을 입고 나와 놀랐던 사실을 회고하였다. 또한 김석운 역시 상투를 틀고 한복 입은 모습의 사진을 남겨놓고 있다.

설을 하기도 하였다. 고한수는 당시 민전의 선전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세진의 4·3 참여에는 이처럼 속가 친족과의 교류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⁴¹⁾

해방공간에서 제주불교는 자체적인 정화를 실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며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 이것은 불교계가 제주사회 속으로 적극 참여하게 되는 자연스런 계기가 되었으며, 이세진의 경우는 서관음사의 활동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미 승속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주민들과 함께 불교혁신운동을 펼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와 여러 요인들 속에서 이세진의 시국에 대한 인식은 급박했던 4·3의 상황처럼 급변했고 자신의 운명을 단시일 내로 결정해야만 했다. 제주 청년승려들의 스승이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강주의 신분으로서 승복을 벗고 충을 들어야했던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시대상황 앞에서 고뇌하는 그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1948년 봄 이세진은 서관음사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마을주민들 중 몇몇의 장정들과 함께 입산을 감행하였다. 이세진의 입산 목적은 무장대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 그의 활동기간은 약 1년이다. 서관음사가 있던 현 도평리 마을 주민들은 불교강원의 강주였던 이세진을 ‘큰스님’이라 기억하면서 동시에 4·3 당시 산속의 대장이었다라고 하여 ‘산왕’이라 부르고 있었다.⁴²⁾

이세진의 무장대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행적은 1948년 겨울 관음사에서였다. 관음사는 근대시기 이세진의 주된 활동장소였으며, 4·3사건 직후 한라산 중턱에 위치해 있던 관계로 무장대와 토벌대 사이에서 많은 피해를 입은 사찰이었다.

당시 관음사에서 출가하기 위해 행자생활을 하고 있던 김광순의 증언⁴³⁾에 따르면 인민유격대의 도당사령부가 1949년 2월 관음사가 불태워지기 직전까

41) 장연중 구술(83세, 한림읍 옹포리 옹포포교당, 1997. 12, 필자 채록), 고계생 구술(80세, 제주시 아라동, 1998. 8, 필자 채록).

42) 홍순녀(75세) 외 도평리 현지주민 구술(제주도 도평동 홍릉사, 2003. 10, 필자 채록).

43) 앞의 김광순(2003. 7, 구술채록).

지 경내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증언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령부 내의 수뇌부는 15명 안팎이었으며, 인민유격대장 이덕구와 이세진, 그리고 장교로 보이는 몇 명의 군인과 3, 4명의 민간인들이었다. 이들은 관음사에 남아있던 승려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별채에서 생활하며 의식주를 해결했다.

관음사는 1949년 초까지 사찰의 기능을 수행하며 6명 가량의 승려와 처사, 보살 등이 기거하고 있었고, 산천단에 위치한 관음사의 암자인 소림사를 오가며 사시공양을 드렸다고 한다. 당시 이세진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증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때가 민간인 3, 4명하고 육지 말 쓰는 군인장교들, 이덕구 등 총지휘본부 사람들 이 관음사에 살았어. 15명 정도가 왔는데 내가 본 것은 그들이 보름 정도 산 후에 관음사가 불에 탔주. 그때 세진스님은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평상복……. 지휘관인 듯 했어. 권총을 차고 있었는데 그걸 들고 있었던 사람은 몇 안 되어. 이덕구도 들고 있었고……. 군인장교들은 긴 장총을 들어서……. 세진스님이 계서서인지 우리한테 폐를 안 끼쳤어. 밥도 따로 해먹었고……. 양식도 다 들고 와서 따로 다른 처소에서 밥해 먹었어. 세진스님한테는 다들 깎듯했어. 이덕구도 방에 앉을 때 스님한테 먼저 상석에 앉으라고 권할 정도였어.”⁴⁴⁾

이세진이 이 수뇌부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참모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아닌가 짐작해본다.

그러나 이세진의 관음사에서의 행적은 이후 1949년 2월 대규모 관음사전투에서 무장대가 패하고 관음사가 전소되면서 끝이 난다. 토벌대는 1949년 1월 4일부터 실시된 한라산 공습과 함께 관음사 일대에 은신해 있던 무장대를 습격하여 대부분을 소탕하고 그 일대를 점거하게 된다. 그리고 1949년 2월 12일 (음력 1월 15일) 관음사를 접수한 토벌대는 돌연 관음사를 방화, 전 건물을 전소시켰다.⁴⁵⁾

44) 앞과 같음. 당시 관음사에는 12살이었던 김광순과 대지월보살, 강용백스님, 김광순의 아버지(당시 산감의 일을 했던 처사였음), 대명화보살 등이 있었다고 구술함.

그리고 관음사를 불태운 직후 그 잣더미 위에 3월 중순경 제2연대 소속 제2대가 주둔하며 주변을 요새화 하였다. 4·3 무장대의 핵심세력인 도당사령부는 관음사전투에서 대패하면서 3월, 무기를 땅속에 묻고 후일을 기약하며 하산하게 된다.⁴⁶⁾ 이세진도 이 시기인 1949년 봄 토벌대의 포로로 붙잡혀 내려오게 된다. 이 당시 이세진을 우연히 목격한 양경월은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다시 졸업증서를 가지러 집에 들렀다가 외도초등학교 앞 정류소에서 있었는데, 세진스님이 물로 취조를 받았는지 뒷덜미가 젖어 있고 수갑 찬 채로 잡혀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던지.”⁴⁷⁾

이세진이 고문을 받았던 곳은 제주시에 있는 주정공장의 임시수용소였다.⁴⁸⁾ 이세진은 이곳에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고문을 당하며 몇 달째 수용생활을 하였는데, 총살되기 직전 가까스로 이일선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죽음을 모면하게 된다. 당시 이일선도 군경에 주목을 받고 있었으나, 육지에서 파견된 장교 중 그의 상좌 김우송을 만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상태

45) 관음사 방화는 당시 제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증언을 보면, “관음사가 불에 별갈게 타오르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하게 어두워지고 맑았던 하늘에 대같은 산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대웅전이 불에 타고 이곳에 안치되어 있는 300여년 된 목불에 불이 붙자 부처가 분노하였다. 목불상은 불에 타면서 분노하여 몸체가 격렬하게 떨리고 눈이 별갈게 되어 번쩍번쩍 빛을 내더니만 ‘팽’하는 소리와 함께 스스로 폭발하였다. 하늘마저 격노하여 불을 붙인 토벌대에게 천벌을 내렸다”(제주도, 제주4·3연구소, 『제주 4·3유적 I』, 각, 2003, 147쪽).

46)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46쪽.

47) 앞의 양경월(1998.10, 구술채록).

48) 앞의 김광순(2003. 7, 구술채록);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 4·3사건자료집Ⅱ』, 미국자료편 5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135쪽;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앞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521쪽. 김광순은 다른 승려들과 함께 주정공장에 갇혀있는 이세진을 면회했다. 그때 주정공장에는 2,000여 명의 사람들이 잡혀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데, 1949년 6월 17일에 주한미대사관이 보낸 문서에도 같은 숫자의 수감자가 있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 또한 당시 주정공장의 임시수용소에서는 군부대 정보과 소속 군인들과 사찰계 형사가 취조를 담당하였는데 혹독한 여러 고문방법이 행해졌다고 한다.

였다. 이세진의 석방도 이 김우송의 도움에 의한 것이었다.⁴⁹⁾

그러나 석방의 안도도 잠시, 이세진은 1949년 7월 경 관음사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중 사복경찰에 의해 붙잡혀간 후 결국 총살되면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 당시 이세진의 나이는 40세였다. 이세진의 죽음으로 인해 그가 제주 불교에 남기고자 했던 다양한 노력들, 그것의 총결실이었던 제주불교혁신운동은 제주4·3사건이라는 절벽에 가로막히어 결국 좌절되기에 이른다.

6. 맺음말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식민지 종교가 안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사상을 계승해나가려 했던 근대 한국불교운동의 흐름 중 제주지역에서 표출된 혁신운동이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세진의 주요 업적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이세진이 제주에서의 활동을 결심하고 귀향한 후 관음사포교당인 대각사에서 본격적인 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1920년대부터 제주불교계는 활발한 포교활동으로 양적 발전을 이뤄내며 꾸준히 출가 승려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교육시켜낼 교육기관이 부재했던 까닭에 승려들의 非불교적인 형태의 기복적 성향으로 치우치는 문제에 대해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본말사제도 하에 놓인 당시 제주의 사찰과 승려들은 타 지역의 본사에 개별적으로 소속됨으로서 행정적인 마찰과 함께 여러 갈등요소를 낳고 있었다. 당시 제주불교계는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제주불교를 하나의 구심체 속에 묶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제주승가교육은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1930년대 초부터 추진되었고, 1939

49) 앞의 김평수(1998. 1, 구술채록). 김우송은 1945년 11월에 열린 제주도불교청년단결성대회에 참석하여 이후 불교청년단원의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열린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에도 참석하여 임시집행부에서 巡察職을, 그리고 제주교무원에서 감찰직을 각각 맡아 활동하였다.

년 전통강원의 강주로서 자격을 갖춘 이세진이 부임하면서 비로소 교육기관으로서의 틀을 갖춘 제주강원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1942년 서관음사에서 승가의 경제적 자립의 주창 아래 기와공장 운영과 강원교육을 병행 추진했던 독특한 형태의 불교운동을 꼽을 수 있다. 이세진은 대각사 제주강원에서 이루지 못한 승가교육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관음사를 창건하고 그곳에서 후학들을 양성하여 한국불교의 전통의식을 올바르게 계승하고자 하였다. 이는 이세진의 스승이었던 백학명과 박한영의 영향, 그리고 당시 시대적 사회흐름과도 연결된 것이었다. 이세진은 선농불교 사상에 한국불교의 정신을 잇는 전통강원 교육을 연계시켜 한 사찰의 도량 안에서 승가교육기관인 강원과 생산체제의 틀을 갖춘 공장을 함께 설립 운영함으로써 기존 불교계 내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형태의 불교혁신운동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승가경제체제의 독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경제적 이윤을 통해 승가가 주체가 되는 제주사회의 교화사업을 일으키고자 시도된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 이세진은 일제강점기 하에서 식민지 종교가 안고 있는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사상과 제주지역의 자주적 승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다.

더 나아가 그의 혁신운동은 아직까지 이뤄내고 있지 못한 제주불교계의 통일과 화합, 독자적인 역량과 위상 정립 그리고 시대적 사회현실인식 등의 제반문제에 던져주는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근현대 제주불교사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인물사는 객관적 역사 연구를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 역사흐름에 근거하고 있어야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근·현대 제주불교의 연구는 중앙의 불교, 한국사회의 흐름 그리고 제주사회 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이세진, 제주불교혁신운동, 제주불교, 선농불교, 서관음사, 제주4·3 사건, 무장대, 관음사,

■ 참고문헌

- 강석주·박경훈, 『佛敎近世百年』, 중앙신서, 1980.
- 교육원 불학연구소, 『禪院總覽』, 대한불교조계종, 2000.
- _____, 『한국근현대 불교사 연표』,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0.
- _____, 『曹溪宗史:근현대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1.
- 김경집, 『韓國佛敎 改革論 研究』, 진각종 해인행, 2001.
- 김광식, 『韓國近代佛敎史研究』, 민족사, 1996.
- 김광식, 『韓國近代佛敎의 現實認識』, 민족사, 1998.
- 김광식,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김석익, 『耽羅紀年』, 이문당, 1918.
- 김석익, 『亡兄石惺道人行錄』, 1949.
-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경인문화사, 2003.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일제시대 불교정책과 현황』 상·하(조선총독부관보불교관련자료
집),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1.
- 박한영, 『映湖大宗師語錄』, 동국출판사, 1988.
- 불교신문사, 『韓國佛敎史의 再照明』, 불교시대사, 1994.
- 불학연구소, 『講院總覽』,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1997.
-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총서: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21편, 사찰문화연구원, 2006.
- 삼보학회, 『韓國近世佛敎百年史』, 민족사, 1994.
- 아마베 겐타로 著 이현희 譯, 『日帝强占下の 韓國近代史』, 삼광출판사, 1998.
- 연 관, 『鶴鳴集』, 성보문화재단연구소, 2006.
- 윤이흠, 『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 고려한림원, 1997.

-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 이은상, 『耽羅紀行』, 조선일보사, 1937.
- 이 정, 『韓國佛敎人名辭典』, 불교시대사, 1993.
- 이희명 著 권태연 譯, 『晦明文集』, 여래, 1991.
- 정광호, 『近代韓日佛敎關係史研究』, 인하대학교출판부, 1994.
- _____, 『韓國佛敎最近百年史編年』, 인하대학교출판부, 1999.
- 정성분, 『中國禪宗의 成立史研究』, 민족사, 1991.
- 제민일보4·3취재반, 『4·3은 말한다』1~5편, 전예원, 1994~1998.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자료집Ⅱ』 1~11, 제주4·3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1~2003.
- 제주도·제주4·3연구소, 『제주4·3유적 I』, 각, 2003.
- 제주도, 『제주록 : 조선총독부관보中』, 제주도, 1995.
- 제주도경찰국, 『濟州警察史』, 제주도경찰국, 1990.
- 제주도지편찬위원회, 『제주도지』 제6권, 제주도, 2006.
- 제주불교사연구회 편,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 _____, 『근대제주불교를 읽는다 :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출간기념세미나』,
2002.
- 조계종 총무원,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Ⅱ』제주도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004.
- 최기영, 『한국근대개몽사상연구』, 일조각, 2003.
-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2인의 증인을 통해 본 근현대불교사』, 선우도량, 2002.
- _____, 『新聞으로 본 韓國佛敎近現代史』 (한국불교근현대사자료집 I),
상·하, 선우도량, 1995.
- _____, 『新聞으로 본 韓國佛敎近現代史』 (한국불교근현대사자료집 II),
상·하, 선우도량, 1999.

■ 부록

이세진의 생애 연표(1910~1949년)

※ 이 표는 이세진의 이력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1947년 작성된 『教籍簿』와 근대시기에 발간된 매일신보·불교시보 등의 신문과 불교·홍범우 등의 잡지, 그밖에 여러 문헌기록 및 구술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시기	나이	이세진의 행적	제주불교관련	비고
1910년 8월 25일	1	제주도 한경면 저지리에서 출생	1908년 觀音寺, 1911년 法井寺 창건	1908년 박한영 佛敎改革運動 주창
1914년	5	母親김운하의 親家가 있는 제주시 산천단에서 생활	1909년 김석운 제주의병 항쟁 참여	1910년 臨濟宗運動 1911년 寺刹令 공포
1915년	6	내장사 백학명에게 맡겨짐		
1916년경	7	백학명과 함께 몇 차례 관음사를 방문해 머물다 감		
1920년	11	보통교육을 제주에서 받기 위해 제주시 산천단에 있는 외가로 돌아옴	1918년 법정사 항일운동 1924년 관음사 灌佛會, 제주불교협회 창설 1926년 8월 震河 제주도 포교당에서 입적 1927년 원문상 소년명진회 창설하여 야학운동 펼침	1921년 禪學院 창설 1922년 禪友共濟會 결성 1923년 백학명 내장사에서 禪農佛敎運動 주창 1926년 10월 개운사 대원암에 大圓講院 설립 1927년 백운성 경남과 중국에서 선농불교운동 주창 1928년 조선불교학인 대회 1929년 3월 27일 백학명 입적 1929년 조선불교선교양중승려대회 개최
1924년 3월 13일	15	濟州公立普通學校 졸업		
1926년 12월 5일	17	제주도 저지리 漢文私塾에서 四書를 수학		
1927년 11월 25일	18	내장사에서 출가 백양사에서 도첩 受		
1927년 12월 27일	18	내장사에서 사미계를 受		
1929년 7월 15일	20	내장사에서 安居를 성취함		
1930년 4월 8일	21	백양사에서 비구계 柳錦海 계사로부터 受	1931년 제주불교 임시대회 개최	
1930년 7월 16일	21	내장사에서 四集科 졸업	1934년 신흥연 함덕리 외팔절에서 농촌계몽운동 펼침	

1934년 4월 15일	25	대원강원에서 大教科 및 隨 意科를 졸업	1935년 제주불교협회 중학강습소 1936년 5월 관음사 초대 주지 안도월 입적 1936년 8월 대흥사에서 제주 순회포교 1936년 10월 문학연을 비롯 법화산림 대작불사 제주도 주요포교소 순회강연 1936년 10월 백양사 한림 포교소 이학암 창건 1938년 5월 안봉려관 입적 1938년 9월 월정사에 근대최초의 제주선원 설립 1938년 7월~8월 中央佛 專 巡講隊 순회강연 1939년 4월 제주불교연맹 창설 1939년 7월 관음사 燒失, 대웅전, 승방, 객실 3채 전소	1938년 총본산 건축 완공		
1934년 7월 15일	25	내장사에서 수선안거를 성 취함				
1934년 6월 10일	25	내장사에서 첫 교육활동 시 작, 총무 겸직				
1934년 8월 25일	25	백양사에서 大禪法階 稟受				
1936년 8월 25일	27	백양사에서 中德法階를 昇 受				
1937년 3월 15일	28	표훈사 衆香講院 講主 활동				
1938년 1월 15일	29	금강산 표훈사 法務에 취임				
1939년	30	제주에서의 활동 시작				
1939년 2월 3일	30	백양사 제주도 한림포교당 포교사부임				
1939년 4월	30	濟州佛教聯盟 교육부장 역 임, 관음사 읍내포교당인 大 覺寺 제주강원에서 승가교 육 활동 시작				
1939년 7월	30	제주불교연맹 제1회 순회강연 강사로 참여				
1941년 4월 8일	32	대각사에서 比丘受戒式				
1941년 4월 16일	32	유점사에서 大德法階를 昇 受			1943년 5월 제주도내 위봉사 포교당 40여 곳을 백양사로 양도 협정 인하함 1945년 12월 조선불교혁신계 주승려대회 개최 1947년 2월 이일선 민전공동 의장 역임 1947년 3·1사건 희생자 조위 금 모집에 제주교무원 성금전달	1945년 전국승려 대회 1948년 4월 박한영 입적
1942년	33	도평리 西觀音寺 창건, 청년 승려들과 마을주민들이 합 심하여 강원과 기와공장운 영, 이세진 제주불교혁신운 동 주창				
1948년	39	서관음사에서 마을장정들과 함께 입산 무장대활동				

1949년 1월경	40	이덕구를 비롯한 무장대 도당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관 음사에 잠시 기거		
1949년	40	군경의 포로로 잡힘		
1949년 7월	40	관음사포교당에서 군경에게 불잡혀간 후 입적		



〈그림 1〉 대각사 제주강원 비구수계식
(1941년 초파일에 관음사 포교당인 대각사에서 촬영, 이세진-원 표시)

Lee Se-jin's Reform Movement of Jeju Buddhism in the nineteen forties

Hahn, Geum-sil

(Department of Histor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The thesis tries to reveal the forgotten facts of Jeju history Through the life of a buddhist monk, named Lee Se-jin, who lived from 1910 to 1949 by considering not only the modern historical stream of Jeju buddhism connected with Jeju people's lives but also the reform of Jeju buddhism intensely developed in the current of the times

Lee Se-jin was born in the year of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and died in 1949. As his short 40-year life shows how the modern Jeju Buddhism was distorted, it must be a good example for studying Jeju Buddhism to light up his life. Of his significant achievements, the meaningful thing to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as well as that of Jeju buddhism is that he tried to educate buddhist monks in Jeju Gangwon(an educational institution of buddhism) for the first time. In the Seogwaneum temple, he led the reform of Jeju Buddhism that started in cooperation with monks and the residents.

Lee Se-jin's revolutionary thoughts were influenced by the modern Seonnong Buddhism which was continuously observed in his life from childhood up until he became a buddhist priest. The Seonnong Buddhism was a practical buddhism which aimed at taking part in the living of the masses. It was also a reform of buddhism that intended to find solutions of things in collaborated lives of monks and the masses by

inspiring them with ascetic exercises through labor under the impartial productive structure. Lee related The Seonnong Buddhism with a traditional Gangwon which succeeds to the spirits of Korean Buddhism. That enabled him to found and operate a Gangwon, an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 Gongjang, a productive system, within one temple together. This activity can be considered as quite unique type of the reform movement of buddhism that was unparalleled in the established buddhism world.

The Seogwaneum temple, the practical space of the reform, was burned down by the punitive force in January, 1949 during the Dopyeong Massacre. In July, the temple was closed right after one monk buried the image of Buddha under the ground at the news that Lee was shot dead. Unfortunately, Lee's reform was blocked by Jeju 4.3 Uprising and disappeared into history along with plenty of traces of Jeju Buddhism.

As stated above, this paper tries to describe Lee's movement frustrated by Jeju 4.3 Uprising. The study on the movement can be considered as a basic material clarifying the identify of the present Jeju Buddhism, the relationship of the movement with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and the concrete tendency of the revolutionary period of Korean society.

[Key Words] Lee Se-jin, the reform of Jeju buddhism, Jeju buddhism, Jeju Gangwon(an educational institution of buddhism), the Seonnong Buddhism, Seogwaneum temple, the Jeju 4 · 3 Uprising.

투고일 : 2007년 6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6월 25일